

데스크시각



김미은 편집부국장·문화부장

“공부하기는 싫지만 친구들 만날 생각 하니 좋아요.” 지난 4일 뉴스를 보다 픽 웃고 말았습니다. 생활방역 전환 관련 인터뷰에 응한 어느 초등학교 남학생의 말이었죠. 어서 빨리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은 ‘아이의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더군요. ‘아이는 아이구나’ 싶었습니다.

어제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아이들 예겐 가장 큰 연례행사일 텐데 상황이 예전과 많이 달라 아쉬웠을 것 같아요. 어제 출근길, 더위진 날씨에 어른들도 잠기 힘든데 마스크를 낀 채 자전거로 동네 공원을 가로지르는 아이들 모습을 보니 왠지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간지 ‘작은 것이 아름답다’가 ‘푸른 달’이라 명명한 5월은 가정의 달이자, 감사의 달입니다. 어버이날(8일)과 한부모가족의 날(10일), 스승의 날(15일) 등이 이어져 있지요. 날을 정해 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가도 ‘바쁘다’란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우리에겐 ‘이런 날’이라도 있어야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게 되고 안부 전화라도 드리게 되니 고맙다는

27년간 딸을 배웅하던 부모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몇 장의 사진을 보며 울컥해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외국인 노부부의 모습이 시간순으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포즈로 촬영된 사진 속엔 27년의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노부부 모습 사진에 담다

주인공은 미국 사진작가 디애나 다이크만(Deanna Dikeman)의 부모입니다. 부모님 댁을 자주 방문했던 작가는 자신이 떠날 때마다 손을 흔들며 배웅해주는 부모님을 1991년부터 앵글에 담기 시작합니다.

사진 속 부모님의 모습은 변해 갑니다. 얼굴의 주름은 깊어지고, 몸은 점점 쇠약해집니다. 하지만 딸과 손자를 배웅하는 모습만은 여전하죠. 스코틀을 내리다 마음이 콩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만 사진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2009년, 지팡이에 의지한 채 차고에 세워진 차에 기대어 손을 흔들던 모습을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홀로 딸을 배웅하던 어머니도 어느 순간부터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방안에서 배웅하죠. 그리고 2017년의 마지막 사진은 ‘손 흔드는 이 없는’ 텅 빈 차고 앞모습이었습니다.

작가는 2018년 ‘헤어짐과 배웅’(Leaving and Waving)이란 이름의 전시회를 열어 감동을 전했습니다. 저처럼

럼 인터넷으로 사진을 접한 이들도 ‘멀리 계신 어머니와 헤어질 때마다 마지막은 아닐까 해서 사진을 찍어 놓곤 한다’며 동감을 표하더군요.

가족 이야기를 담은 사진집으로는 ‘윤미네 집’도 인상적입니다. 성공관대 토목공학과 교수를 지낸 아마추어 사진가 고(故) 전몽각 선생이 1964년 큰딸 윤미가 태어나 시집가는 날까지 26년간 찍은 사진과 글을 엮어 1990년 펴낸 책입니다. 카메라가 귀했던 시절, 집안에 보물처럼 갖고 있던 수동 카메라를 떠올리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고, 업고, 뒹굴었고, 비비대었고 그것도 부족해서 간질이고, 꼬집고, 깨물어 가며 아이들을 키운’ 아빠의 사랑스러운 앵글이 잡아 낸 삼남매와 아내의 모습은 행복해 보입니다. 인형을 옆에 나란히 재우며 잠들어 있는 윤미, 막 태어난 갓난이 동생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뒷모습, 처음으로 교복을 입고 입학식에 참석한 모습 등은 윤미네 가족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너무도 평범한 가족의 꾸밈없는 일상’을 담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해 더 정감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한때 헌책방에 있는 보물 중의 하나로 구하기 힘들었지만, 발간 20년 만인 지난 2010년 윤미 씨가 재발행해 구입이 쉬워졌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 영화’로 꼽는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주연의 ‘인생은 아름다워’의 부성애도 떠올릴수록 마음이 아립

니다. 2차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의해 수용소로 끌려간 귀도와 아내 라도(베니니의 실제 아내), 아들 조슈아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이지요. 이 영화에서 정말 많은 사람을 울린 장면이 있습니다. 귀도는 아이가 수용소 생활을 마치 즐거워 놀이인 것처럼 즐기도록 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거짓말’을 이어 갑니다. 쓰레기통에 숨겨둔 아이와 원크를 주고받고, 아주 우스꽝스럽고 씩씩한 모습으로 병정놀이하듯 죽음의 장소로 걸어가는 귀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왈칵 눈물을 쏟고 맙니다.

‘인생은 아름다워’의 부성애

1999년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 남우주연상, 음악상을 수상한 이 영화는 언제 봐도 감동을 줍니다. 아름다운 주제음악과 ‘호프만의 뱃노래’ 등 삽입곡들도 인상적이지요.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한 번 보시길 권합니다.

아마도 올해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날도 예년과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늘 자식 걱정이 부모님들의 등장 어버이날에 올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만남이 조금 늦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부모님의 모습을, 아이의 모습을, 오랜만에 뵙는 스승의 모습을, 늘 가지고 다니는 휴대전화로 찍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의 ‘전기’(傳記)가 된 ‘윤미네 집’처럼, 나중에 이 사진들이 나와 소중한 사람들’의 전기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mekim@kwangju.co.kr

은편칼럼

코로나와 공감 플러스



고성혁 시인

오월이다. 역병 코로나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 대구·경북분들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어지셨을까. 서울 소재 대학에 합격, 자취방을 얻은 대구·경북 학생들에게 방을 빼라고 요구했다는 기사, 그리고 긴 대기 시간으로 진단 검사마저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할머니의 인종 때 정작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할아버지는 55년을 함께한 할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마저 할 수 없었다는 기사를 읽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대구·경북분들, 그동안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상처는 마음에서 온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된 이제 그분들 마음의 응어리가 녹아 몸과 마음에 평화가 흐를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부디 특별 같은 축복이 넘치기를. 1977년 봄 입대 했다. 자대는 서울 근

교였는데 출신을 물어보면 선임은 안타까운 듯 얼굴을 돌렸다. 부대 분위기는 나의 출신지 호남과 나머지 비호남으로 구분된 것 같았다. 졸병인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까지도 조심했다. 호남 출신은 ‘따발뿔’이었다. 뒤통수에 대고 전남은 A뿔, 전북은 B뿔이라고 말하는 선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그뿐이었다. 이길 수 없는 처지였으므로 나는 오로지 견뎠다.

군에서 제대한 80년 봄 광주 항쟁이 일어났다.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명명된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광주의 진실을 오랫동안 외면했다. 광주로 대표되는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디안’이라 불렀다. 실수는 어느 지역,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건만 전라도 사람의 그것에는 ‘홍어’라는 이름의 혐오가 뒤따랐다. 그런 고통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분노했지만 분노는 더 큰 상처로 돌아올 뿐이었다. 교훈은 체념으로 변해 어떤 비하도 못들은 척 감수했다.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시절 중앙 정부와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건 ‘은따’였다. 은근한 따돌림. 이쪽 직원들은 저녁이면 함께 소주를 마시며

‘하와이’의 아픔을 곱씹었다. 중앙 부처에서 업무 협의가 끝난 어느 날 환담을 나누다 물었다. 이승엽과 박지성을 좋아하느냐고. 사람들이 쳐다봤다. 그 사람들이 전라디안입니다. 뜬금없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사투 진지하게 말했다. 좀 봐 주시라는 말입니다. 이승엽의 부모님이 전남 출신이고, 박지성의 고향이 고흥이라는 말을 슬쩍 상기시켰던 그때를 떠올리고 나니 부끄럽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5·18 항쟁을 폄하하는 사람들은 많고 많다. 이종명, 김순례, 지만원. “5·18 사태는 10년, 20년 후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된 것”이라고 말한 이종명과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 내 우리 세금을 추내고 있다”고 한 김순례, 그리고 “북한군 개입이 증명됐다”며 광주시민들을 ‘광주에 집투한 북한군 특수부대’인 ‘광수’라고 말하는 지만원.

5·18 40주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며 금남로 역사의 현장에서 시위를 하겠다는 ‘자유연

대’라는 단체는 또 어떤가. 아직도 광주에 치욕과 수치를 안기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그 말, 또 그 레퍼도 40년이 흘렀건만 인터넷에서는 아직도 업지를 치켜드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법의 심판이 끝났음에도 판으로 보고 떠벌떠벌하는 사람들. 광주에게 5·18은 현재진행형이다. 상처는 깊고 외로움은 크다.

대구·경북분들 부디 힘내시기를 바란다. 국민 모두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무엇이든 서로 도와야 한다. 딸을 찾아 서울에 왔다가 백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할머니도 힘내시길 바란다. 그분은 그 후 어떻게 되셨을까. 그 할머니를 처벌하려면 그보다 먼저 진료를 거부한 대구와 서울의 병원을 처벌해야 하고, 그 병원들에게도 진료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다면 완벽한 진료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한 정부도 책임져야 한다. 정부에게도 이룰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면 그건 우리 모두의 몫이다. 코로나가 짓밟은 2020년의 봄, 위기 속에서 오히려 국격을 높인 나라만큼 대구와 광주를 향한 공감 또한 플러스가 됐으면 좋겠다.

기고

교통안전 21일의 법칙



박갑수 광주시 교통정책과장

어느덧 2020년 중반이 다가온다. 새해의 굳은 맹세도 잊혀진 지 오래다. 항상 여러 목표와 다짐을 세워 보지만 목표를 실천하지 못했음을 깨닫는 순간 종종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한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나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일 반적으로 우리의 뇌에 습관을 각인시키는 데 무려 21일이나 걸린다는 것이다. “21일의 법칙”은 미국의 의사 맥스웰 몰츠가 주장해서 알려진 것이다. 21일이란 우리 뇌의 대뇌 피질에 새로운 신경 회로가 만들어지는 시간을 말한다고 한다. 즉, 새로운 행동을 습관화하는 데는

최소 21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다른 말로 ‘최소 각인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공부의 신으로 유명한 강성태 씨도 똑같은 주장을 했다고 한다. 나의 목표에 꾸준함이 없었다는 게 패착이라는 것이다. 사실, 그간의 새해 맹세 이행률을 생각하면 고작 21일로 될까 싶다. 의문도 들 것이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매일 21일을 습관처럼 반복하면 우리의 뇌는 이를 각인시켜 일상의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금연의 꿈을 꾸는 동지 여러분들은 3주를 기억하자! 건강하고 멋진 몸매를 원한다면, 최소 3주는 매일 운동화를 신어야겠다. 21일의 법칙이란, 습 쉬는 것처럼 의식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 나가듯 습관처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판단된다. 습 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너무나 당연하여 간과하기 쉬운 교통질서 지키기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교통사고가 발

생하고 있고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 다치거나 죽고 있다. 2019년 국토교통부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11.4% 감소한 3349명(2018년 3781명) 감소세에 있다. 우리 시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 75명에서 49명으로 33.3% 대폭 줄었다. 그러나 2019년 국내 사고 발생 건수는 22만 9600건으로 2018년 발생한 사고건수 21만 7148건과 비교하여 1만 2452건(5.7%)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는 34만 1712명으로 2018년 부상자 32만 3037명과 비교하여 1만 8675명(5.8%) 증가했다. 우리 시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8108건으로 2018년 7432건과 비교하여 676건(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는 1만 2899명이며 이 중 안타깝게도 49명은 사망에 이르러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내게 되었다. 이처럼 매 순간 교통사고는 발생하고,

사랑하는 누군가의 가족은 사망하거나 크게 다쳐 영구적인 장애를 안기도 한다. 그렇다면 왜 사고가 나는 것일까? 머리는 알지만 실천은 쉽지 않은 새해의 다짐과 맹세 같은 교통안전 불감증 때문 아닐까? 이제까지 나를 위해 금연하고 운동을 했다면,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는 ‘교통안전 21일의 법칙’을 실천해 보자. 첫 번째, 노란 불에는 멈추고, 두 번째, 음주·과속 운전 안하기, 세 번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차차와 무단 횡단 안하기! 나부터 먼저 실천하면 교통사고는 줄일 수 있다. 아침 출근길, 적어도 3주간은 의식적으로 이 세가지 교통안전 법칙을 떠올려보자. 도로의 주인은 사람! 보행자가 먼저 지나가게 양보하는 여유 있는 일상을 제안해 본다.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광주, 서로를 배려하는 교통 선진 도시 광주. 내가 원하는 주제적인 삶에 안전과 행복도 더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社說

생활방역 전환 ‘거리 두기’의 끝이 아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22일부터 지속해 온 사회적 거리 두기를 45일 만에 종료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생활 방역’ 실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시설은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며 행사와 모임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원칙적으로 운영이 허용된다. 그러나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조치가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면 서 거리 두기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생활 방역은 사회·경제 활동을 보장하되 국민 개개인과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에 책임을 지는 방역 주체가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을 빼앗겼다. 종교 활동, 집회, 모임이 제한을 받고 PC방, 체육시설, 학원, 술집,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외출이나 여행 대신

스스로 ‘자극 거리’를 선택했고 이 같은 높은 시민의식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코로나 확산세를 막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개인의 철저한 생활 방역 이행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간의 노력이 일순간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손 씻기, 개인 간 최대한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키는 데 절대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자칫 방심할 경우 재앙은 언제든 또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 방역 당국은 오히려 올해 가을이면 코로나19가 더 크게 유행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 또한 앞으로 코로나 재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집단 방역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5·18 진실 바로 세우기 민주당이 앞장서야

올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게 되지만 광주는 여전히 아프다. 발표 명령자 등 핵심 의혹이 어둠 속에 묻혀 있는 데다 오월의 진실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50여 건의 5·18 관련 법안 이 발의됐지만 대부분 빛을 보지 못한 채 폐기된 처지에 놓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5·18 관련 법안(결의안 포함)은 모두 53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된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과 관련 개정안,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 13건에 그쳤다.

특히 5·18에 대한 비방·왜곡·날조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일곱 건이나 발의됐지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고, 5·18 진상 규명 특별법을 보완하는 여덟 건의 법안도 마찬가지로 상황이다. 또 5·18 희생

자와 가족, 관련자들에 대한 지원 법안도 15건이나 발의됐지만 법제화에 실패했다. 이는 각 상임위에 포진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의 ‘슈퍼 여당’으로서 개헌을 제외하고는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권을 확보한 것이다. 더욱이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인 18명은 전원이 민주당 소속이다. 따라서 지역 의원 당선인들은 21대 국회에서 5·18 관련 법안들의 제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함으로써 5·18 진실 바로 세우기에 민주당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5·18 법안이 당의 주요 입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나아가 개헌이 이뤄질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인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전통적인 화폐의 개념이 약해지고 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주화나 지폐 대신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등장했는가 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지역화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지역화폐는 본격적으로 발행된 2017년 이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지급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현재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곳은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84%인 204곳에 달

는 것도 지역화폐의 긍정적 효과다. 해남군은 ‘해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한 지 1년 만인 지난달 610억 원을 판매했고 올해는 105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전남 시군들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어민 공익수당 60만 원액을 모두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순수 카드형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는 더 대박이 났다. 광주 시가 광주은행과 손잡고 지난해 3월 발행했는데 올해 들어서만 발행액이 2400억 원을 돌파해 4개월 만에 지난해 발행액의

지역화폐

2.8배를 넘어섰다. 긴급생계비 등 정책자금 집행이 시작된 지난해에만 157억 원이 늘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18일부터는 지원금이 지역화폐로도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그 전에 신용카드로도 받을 수 있지만 사용 기간이 3개월로 한정돼 있는 반면 지폐형 지역화폐는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지역 소비 촉진에는 큰 도움이 된다. 소비하지 않고 현금화하는 ‘상품권 갱’만은 안 된다. 이제부터는 ‘갱’을 하다 걸리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필수 제2사회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政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국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220-0663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52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220-0642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